

인권실사 의무화 시대, 지평 인권경영틴, ‘인권경영 해설서’ 발간



“인권실사, 오히려 기업에 기회다”

지평은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인권경영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인권경영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뤘습니다. 인권경영이 무엇인지, 인권실사는 인권영향평가와 어떻게 다른지, ESG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본 개념을 비롯해 인권실사와 관련된 국제규범을 정리하였습니다.

CONTENTS

+ 목차 자세히 보기

Opening

- PROLOGUE 인권실사, 오히려 기업에 기회다
- COLUMN ‘좋은 기업’과 ‘착한 기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들

Special

5FAQ & 5GUIDE_질의응답과 가이드라인으로 인권경영과 친해지기

5FAQ

- 1. 인권경영이란?
- 2.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3. 공급망 인권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 4. 인권경영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일까?
- 5. 금융기관과 투자자도 인권존중책임이 있을까?

5GUIDE

- 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OECD의 가이드라인
- 2.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 3. 기업인권벤치마크와 노더체인의 평가 기준
- 4.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프레임워크와 GRI의 공시기준
- 5. 커지는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설명 책

SME TIP

중소기업 필독! 알아두면 쓸모 있는 HOW TO 인권경영

Section 1

MANUAL_차근차근 따라 해보는 UNGPs 인권경영 매뉴얼

PART 1. 1단계 인권정책 선언

PART 2. 2단계 인권영향평가

PART 3. 3단계 통합과 조치

PART 4. 4단계 추적과 검증

PART 5. 5단계 소통과 보고

PART 6. 6단계 구제 절차

Section 2

CASE STUDY_기업 모범사례로 알아보는 인권경영

PART 1. '사업장 중심' 인권경영
핵심개념

PART 2. '공급망 중심'인권경영
대표 사례

PART 3. '소비자 중심'인권경영
포인트

PART 4. '지역사회 중심'인권경영

PART 5. '신기술' 중심 인권경영

Section 3

GLOBAL TREND_ 글로벌 법제화 동향으로 살펴 보는 인권경영 관련 규제

프랑스 UNNGPs 인권실사 최초 법제화

독일	인권실사 의무화 법률 제정
노르웨이	개별법 제정 통해 의무사항 등 구체화
유럽연합	EU기업 협력업체 전반기 영향 미쳐
영국	인권실사 간접적 강제
네덜란드	아동노동 인권실사의무 강제
스위스	직환경·인권 전반 비재무정부 공시 의무 부과
호주	의무기업은 인권실사·구제절차 사항 보고해야
미국	강제노동 관여 기업 상품 수입 금지
일본	유니클로 제재 계기로 인권실사 착수
한국	공공기관·공기업 인권경영 제도적 반영
태국	아시아 최초 기업과 인권 NAP 수립

Epilogue

스페셜리스트

참고문헌

관련기사

- “개념부터 사례까지 인권경영의 모든 것, 한 권에 담았습니다”(한국경제, 2023. 2. 26.)
- 인권경영의 모든 것…한경 MOOK에 담았다(한국경제, 2023. 2. 26.)

지평 인권경영팀 소개

지평은 2019년 국내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출범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성택 대표 변호사의 총괄 하에 지금까지 다수의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인권실사/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한 ‘2022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에 민창욱 변호사(풀무원)와 정현찬 전문위원(SM엔터테인먼트)이 각각 책임연구원으로 인권실사를 이끌기도 했으며, 제조·IT·제약 등 다수의 산업군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등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평은 2021년 말 세계적인 인권경영 컨설팅 업체인 BSR과 업무협약을 맺어 인권실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고, 2022년 1월과 11월 BSR 전문가들과 함께 ‘공급망 지속가능성과 인권실사’ 및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의 책임과 공급망 인권실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로펌 최초로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운영기관인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BA)’에 회원사로 가입하여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평은 인권경영에 대해서 국내의 어느 기관보다 세계적 흐름에 정통해 있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인권경영팀

임성택 대표변호사	T. 02-6200-1746	E. stlim@jipyong.com
김영수 변호사	T. 02-6200-1925	E. yskim37@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T. 02-6200-1841	E. cwmin@jipyong.com
권영환 변호사	T. 02-6200-1877	E. yhkwon@jipyong.com
정현찬 전문위원	T. 02-6200-1896	E. hcjung@jipyong.com